

■ 본문

눅 8:34-39

■ 시작 찬송가

15, 31, 167장
(통 55, 46, 157장)

■ 헌금 찬송가

218, 436, 505장
(통 369, 493, 268장)

▶ 앓다

1. 성도가 앓을 곳

- 1) 주의 발 아래
(신 33:3, 눅 8:35)
- 2) 하나님 앞
(삿 20:26, 삼하 7:18)
- 3) 천국에
(마 8:11, 엡 2:6)
- 4) 낮은 자리에
(눅 14:10)

2. 성도가 앓지 말아야 할 곳

- 1) 오만한 자의 자리
(시 1:1)
- 2) 높은 자리에
(눅 14:8)
- 3) 허망한 사람과 같이
(시 26:4)
- 4) 하나님 자리에
(겔 28:2)
- 5) 우상의 집에
(고전 8:10)

‘앓다’와 ‘서다’

서양의 문화에서 서는 것은 예의이고, 경외를 표하는 것이며,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서양에서 예배가 발전해왔기 때문에 예배드릴 때 성도가 서는 모습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일어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구약성경에도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출 33:10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느 9:3 이 날에 낮 사분의 일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사분의 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신약으로 오면서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교제하셨을 때 그 친밀함의 표현은 무엇이였습니까? 함께 앉아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 앞에 서 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앉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마 9:10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앉는다는 것을 피동적인 자세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그 앞에서 귀와 마음을 열고 앉아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앉아 있는 것이 성도의 가장 아름답고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라사인 지방의 귀신 들린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 중의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가서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야기이고, 귀신이 쫓겨난 사람이 바로 주님 앞에서 제자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갈릴리는 유대 쪽 갈릴리가 있고 이방인 쪽 갈릴리가 있습니다.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게 되면 이방 땅, 즉 ‘데카볼리’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데카볼리’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이것은 ‘열 개의 도시라는 뜻의 ‘데카폴리스(Decapolis)’입니다. 로마가 다스리기 위해서 세운 열 개의 도시가 바로 데카볼리입니다.

눅 8:26-27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을 때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자신을 “나는 군대 귀신이다.”라고 말합니다. ‘군대’라는 말은 ‘레기온(Legion)’입니다. 다시 말해 ‘군대 귀신’은 로마 군단이 가졌던 최소한의 병력인 3,000명 정도의 귀신을 말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수천의 귀신에 들린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에 사로잡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눅 8:30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니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삼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먼저, 정신적인 어려움입니다. 귀신에 휩싸였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그는 육체적으로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옷을 입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해매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덤 사이에 거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졌고, 옷을 갖추게 되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눅 8:35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앓다’의 의미

이 사람의 변화 중 가장 아름다운 변화는 이제 무덤 사이에 거하지 않고, 주님의 발치에 앉은 것입니다. 이 변화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앉는 것’을 ‘깊어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구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악인들의 꾀를 따라잡니다. 그리고 어느새 죄인들과 함께 서 있게 되고 결국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시 1: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반대로 우리와 예수님과 함께 자리에 앉는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 제자는 주님과 앉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자리에 앉는 사람이 주님과 깊은 관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가서 앉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앉는 것이 더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왔을 때 예수님은 “앉으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발치에 앉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눅 10:39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눅 10:42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막 6:38-39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 위어 앉게 하시니**

또한, ‘앉는다’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안식은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와서 앉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하지 않는 날’로 만들었지만, 우리는 ‘앉는 날’로 만들어야 합니다.

눅 4:16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앉음’은 ‘훈련’입니다.

첫 번째, ‘기도’라는 앉음의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성장시키기 위해 주신 훈련 중 하나가 가만히 앉아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애 3:26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두 번째, 이웃들과 함께 앉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기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과 앉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였고, 그들과 함께 앉으시는 분이었습니다.

눅 14:10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칭찬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 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일어나 가라

예수님을 통해 귀신이 나가고 자유함을 얻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님을 따라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 것이 귀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배는 우리를 가두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는 주의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눅 8:39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오늘의 한마디

앉음의 연습을 잘 감당하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전하는 주의 복된 성도 됩시다!

공동기도제목

1.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대통령, 안보, 통일 등)
2. 교회를 위해서(교회와 속한 기관 및 봉사자, 교역자, 선교사 등)
3. 해외선교지를 위해서(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4. 국내선교와 기관선교를 위해서(안동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5. 교회 안의 이웃을 위해서(군장병, 해외유학생, 환자 등)
6. 세상의 이웃을 위해서(새터민, 이주노동자, 노숙자, 소년소녀가장 등)

▶ 서다

1. 성도가 굳게 서야할 것

- 1) 믿음 (고전 16:13)
- 2) 자유 (갈 5:1)
- 3) 한 마음 (빌 1:27)
- 4) 주 (빌 4:1, 살전 3:8)